

오륙도 칼럼



김 상 남

연하장을 받았다. 뒷사람이 보낸 터라 아차! 내가 또 한 발짝 늦었구나 하고 탄식했다. 이런 따위의 실수가 한두 번 아니다. 답장은 꼭 보낼 작정이나 결례를 만회하기는 글렀다.

당연히 하수(下手)인 내 쪽에서 먼저 보내야 도리 아닌가. 답장조차 안 보낸 적도 더러 있었는데 일년 내내 부담감을 떨치지 못해 당자와 마주치기가 민망해 고개를 돌

려야했던 일이 떠오른다. 연말이 되어 여러 군데에서 세모의 분위기를 띄우느라 부산하다. 뭐하느라 꾸물거리느냐고 질책을 받은 기분이다.

결치레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오랫동안 무심했던 분들에게 새해 편지를 꼭 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 용하게도 근년에 받았던 연하장들을 간수해 놓았기에 아주 잘한 일이라 여겼다. 매우 능장 부리는 짓거리일지라도 답장을 보내야겠다고 버리는 참이다.

이 동안에 기증본으로 받기만 했던 책도 내 키보다 더 높이 쌓였다. 정리할 생각이다. 감사편지를 보내는 일이다. 욕자를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상투적, 의례적 문구를 쓰기가 싫어, 다 읽어보고 단견(短見)이나마 써야 문인답지 않은가

하는 고착관념을 떨치지 못해 그만 책 더미에 깔려버린 셈이다.

감사편지 생각나는 연말연시

담 너머에서 건네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고 가볍게 한 마디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저지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서 꼼꼼히 따지고 줄 곳고 하면서 되잖은 평생을 늘어놓으려 하다보니 어디 그렇게 하기가 수월한가.

이제 이천십일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그 동안에 미뤘두었던 일들을 속전속결로 치루더라도 끝날 것 같잖아 공리하다보니 묘책이 떠올랐다. 해를 붙들여 매어 놓는 일이다. 음력을 쓰는 일이다. 설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가량을 유예시킬 수 있다.

태양력 생활은 세계적이고 타인과 공유하기에 거슬리지 못하냐 갑오경장 이전에는 주로 음력을 썼었다. 달을 보아 삭망을 짐작으니 세월의 흐름을 감지하는 일은 양력보다 훨씬 수월했다. 다행히 내가 사는 집은 달이 잘 보이는 곳이라 음력을 쳐주는 까닭이 된다.

새해가 임진년, 용띠의 해인데 신정 일테면 양력 1월 1일은 음력으로 신묘(辛卯)년 설날 여드레이다.

문득 어느 단체에서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꼭 치루어야 할 행사가 있었는데 남은 날짜가 촉박해서 모 두 안전부절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취소나 강행이나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내게 묘안이 있다고 하니

모두 희색이 돌았다.

나는 의기양양했지만 사실은 불 속 내뿜은 말이다. 소년 누고 공개 하겠다며 자리를 뒀다. 말하자면 뜬말을 듣이는 짓거리였는데 막막했다. 오줌을 누니 신진대사라도 하듯 꼬투리가 잡혔다. 꼭 양력으로 해야 하나요? 음력으로 날짜를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웃돕기 소식 '가슴 훈훈'

불교와 관련되니 더 땃땃하지 않느냐? 한 달은 여유가 있지 않느냐고 열을 내렸는데 좌중의 반응은 심드렁했다. 일반대중들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사실 새해나 해가 바뀌는다는 일종의 관념이다. 새해라 해서 태양의 빛깔이나 모양이 다르지 않다.

신선대

<191>



선웅의 1000자 지혜

진정 소중한 것은

누구나 가장 소중한게 여기는 것이 하나쯤 있을 것이다. 귀한 보물이나 돈일 수도 있고, 우정이나 신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하여 또는 놓치지 않기 위하여 평생을 그것에 얽매어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걸기도 한다.

제(齊)나라가 노(魯)나라를 침공했을 때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제왕이 노왕에게 제의를 했다.

“노 나라의 제라는 보물을 주면 군대를 철수시키겠소.”

노왕은 신하들과 의논 끝에 가짜 체제를 만들어 보냈다. 그런데 제 나라에 보석을

잘아는 신하가 있어 그것이 가짜라고 아뢰었다.

화가 난 제왕이 사신을 보내어 진짜 체제를 보내라고 하자 노왕이 말했다.

“짐이 어찌 거짓말을 하겠소. 그것은 진짜 체제요.”

제 나라 사신은 하는 수 없이 돌아가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또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와 제왕에게 말했다.

“노나라에 약정자춘(樂正子春)이라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

를 불러 그것이 진짜 체제인지 물어보심이 어떻지요?”

제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사신을 보냈다.

“대왕께서 약정자춘 님을 뵈고 싶다고 하셔 모시러 왔습니다.”

노왕은 무슨 뜻인지 알고 따로 약정자춘을 불러, 제 나라로 가서 그것이 진짜 체제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약정자춘이 왜 진짜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묻자 노왕은 진짜는 아까 잃어서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약정자춘은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것이라 놓치지 아깝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인은 대왕님의 백성이라 목숨도 대왕님께 달려있지만 거짓말을 하기 위해 제 나라 사신으로 가는 일은 거절하겠습니다.”

물적(物的)인 것은 주인이 따로 없기에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정신(精神)은 자신을 지명하는 영원한 기동이라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아닌가?

번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사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검 함부로 뱉지 말자

얼마 전 바락에 달려붙은 검을 칼로 끊어 제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시민들이 무심코 버린 검은 노면에서 시커멓게 달라붙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빗물받이 등에 들어가 하수와 섞이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예산을 낭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이런 검 제거 작업은 일반적 정소와 달리 일일이 주그리고 앉아 직접 손으로 해야 하고 작업 도중에도 보행자를 신경 써야 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누군가 무심코 뱉은 검은 치우는 사람에겐 힘겨운 육체노동으로 돌아온다. 거기다가 사람이 걸거리에 떨어버리는 검은 개당 100원

남짓이지만 이런 검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부산시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써야할 것이다.

민정희(웅호2동)

지속적인 교통단속 절실

얼마 전부터 수영로 남천동 방면에서 남구청으로 좌회전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이 지역의 교통난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것 같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한다.

하지만 교통체계만 바뀌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것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등 때문에 차량 교행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언제부턴가 고물상과 오토바이 가게 등이 우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풍수해 예방교육 실시

민방위교육장 활용도를 높이자는 유영희 기자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민방위 교육장은 20,000여 명의 남구 민방위대원 교육장으로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서기인 여름철에는 정부합동 군사훈련인 을지연습기간 동안 예비군 소집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방위교육이 없는 날은 혹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므로 주부, 학생들을 집합해서 풍수

해예방 등 각종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풍수해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남인전과·박희대>

예산확보 후 가지치기

가로수를 전지해 달라는 김옥련 기자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대연동 부산공고에서 우암동 일신보이라파트 구간 가로수를 2012년도 예산

확보 후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엔로 구간의 가로등이 꺼져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이 구간은 일부 격동제를 실시하는 구간으로 미시시 구간의 고장 난 가로등은 현장 확인 후 수리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매주 순찰점검을 강화해 소등된 조명은 즉시 수리하고 격동으로 통행불편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확인 후 점등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김민영, 도시관리과·김중수>

독자의詩

그리움

장무웅

공원 벤치에 앉아
저만치 멀어져가는 가을을 본다.

노오란 나뭇잎이
마지막 남은 수액을 빨며
태생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체비를 한다
한 줄기 바람에 파르르 떨고
한 줄기 바람에 그들은 날아간다.

새털같은 구름이
뚝을 달고 떠가는
모네의 하늘에
언뜻언뜻
발가벗고 맥을 감던
내 어릴적 고향 바다가 흘러간다
가을을 닮아 파이란 하늘
하늘을 닮아 파이란 바다
멀어져가는 가을을 보는
내 가슴 한 칸에
눈물 같은 그리움이 고인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구름 되어 떠나더니
바람으로 돌아와 내걸을 땀도내
이제 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여기쯤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목청껏 부르고 싶구나
내 그리운 사람들을 위해서.



부산남구문화원 제15기 문화강좌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2년1월02일(월) ~ 03월23일(금) ≡ 공휴일 제외
- 수강료 (3개월) : 연회원 40,000원, 비회원 60,000원, 초등학생 50,000원
- 연회원 가입은 언제나 가능하나 연회비 50,000를 납부해야 하며,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적용
- 개강일 이후로는 환불 처리 되지 않습니다. (2012. 02.02이후) 문의전화 : 607-6359, 624-1333

강좌종류	강좌명	강사명	강의시간	정원	강의실	준비사항
전통문화	한국무용(초급)	정지연	월 13:30~14:30	25명	대강의실	가야금대여비 월10,000원 도구비 (관판,문진,북,버루,머,종이) 별도
	통기타(중급)	정지연	월 14:30~15:30	25명	대강의실	
	디도와 예절	박정희	월 10:30~12:00	15명	제1강의실	
	가야금교실(중급)	양태수	수 10:00~11:00	20명	대강의실	
	가야금교실(초급)	양태수	수 11:05~12:05	20명	대강의실	
	민요판소리	양태수	수 12:10~13:10	30명	대강의실	
생활문화	기초한문서예	박재관	금 13:00~15:00	15명	제2강의실	프린트물 교재비 별도 재료비 별도
	사군자·문인화	박재관	금 15:00~17:00	15명	제2강의실	
	화술·피치	김달현	화 14:00~16:00	15명	제1강의실	
	웃음의유머치유교실	조상영	월 14:00~16:00	15명	제1강의실	
	사주명리학	송복래	수 15:00~16:30	15명	제3강의실	
	천연비누와화장품만들기	박정희	목 10:00~12:00	15명	제2강의실	
웰빙문화	차문화교실	정지연	화 09:50~11:50	15명	제1강의실	재료비 별도
	수채화(초급)	정지연	목 10:00~13:00	15명	제1강의실	
	수채화(중급)	정지연	목 10:00~13:00	15명	제1강의실	
	댄스스포츠(초급)	남우식	월 10:00~11:00	25명	대강의실	
	댄스스포츠(중급)	남우식	월 11:00~12:00	25명	대강의실	
	댄스스포츠(초급)	남우식	월 12:00~13:00	25명	대강의실	
언어강좌	사자교실(중급)	주희민	목 09:50~11:50	15명	제3강의실	디지털카메라 실내화
	사자교실(초급)	주희민	목 10:00~12:00	15명	제3강의실	
	태극권	이희환	화 11:00~12:00	25명	대강의실	
	발라드교실	오재환	금 13:10~15:10	25명	대강의실	
	통기타(중급)	정지연	화 13:30~15:30	15명	대강의실	
	통기타(중급)	정지연	화 15:30~17:30	15명	대강의실	
초등학생교실	통기타(중급)	정지연	목 15:30~17:30	15명	대강의실	교재비 별도
	오카리나(초급)	이귀숙	수 10:00~12:00	20명	제2강의실	
	오카리나(중급)	이귀숙	수 13:00~15:00	20명	제2강의실	
	자세교정을 위한 필라테스	윤지나	월 11:00~12:00	15명	제1강의실	
	영어교실(생활회화)	김지연	화 12:00~13:00	20명	제3강의실	
	영어교실(종합회화)	김지연	화 13:00~14:00	20명	제3강의실	
초등학생교실	영어교실(여행회화)	김지연	화 14:00~15:00	20명	제3강의실	교재 : 한국사편지/웅진출판사 (자체제작 눈송이틀리별도) 교재 : 엄마의 역사편/웅진 (자체제작 눈송이틀리별도)
	영어교실(중급)	이은영	화 15:00~16:00	20명	제3강의실	
	영어교실(초급)	이은영	화 16:00~17:00	20명	제3강의실	
	초등역사논술(국사)	김지연	월 16:00~18:00	15명	제2강의실	
	초등역사논술(세계사)	김지연	월 16:00~18:00	15명	제2강의실	
	초등역사논술(세계사)	김지연	월 16:00~18:00	15명	제2강의실	

■ 살며 생각하며

희망을 찾다

12월도 벌써 반이 지났다. 덩그러니 한 장인 달력을 바라보며 남아 있는 날짜를 눈으로 헤아려 본다. 문득 해님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씩 밀려왔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과연 열심히 살았을까.

추위를 껴서 삼아 겨울이 왔던 운동 길에 나섰다. 호젓한 산길을 걸으며 지난 한해를 되짚어볼 요량이다. 차가운 바람이 임당하며 품 안으로 달려든다. 잠시 망설이다가 어차피 땀쳐진 옷을 바야흐로 차라리 바람을 친구삼아 같이 걷기로 했다. 길을 나서니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가로수들이 추위에 파랗게 질려있다. 잔뜩 움츠리고 중중대대 걷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도 추위가 잔뜩 얹혀있다.

잠복이 무성한 장자산길에 소란스럽다. 바닷바람이 건방지게 휘둥그레 다닌다며 호를 치는 듯 숲이 새차게 흔들리고 있다. 새들의 노랫소리도 바람에 묻히고 바스락대는 낙엽소리까지도 호통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갯빛 철쭉소 한 마리가 쓴살같이 지나간다. 이 추운 계절에 어디서 나타났을까. 문득 겨울잠 도중에 먹이를 먹기 위해 가끔 깨어난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기억이 났다. 고된 배를 채우다가 소란한 숲이 금금해 나와 본 길까. 갑자기 행여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하는 노파심이 들었다.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대며 떨려왔다. 나도 살아오면서 이따금 길을 잃고 헤매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길을 걷다보면 항상 품은 길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좁다란 산길을 걸을 때도 있고 가시밭길에 우거진 진흙길을 걷게 될 때도 있다. 또 자갈이 무성한 길에서는 빨리 벗어나고

심은 욕심에 서두르다 발뽀리를 채일 때도 종종 있다. 그러나 또한, 청량한 바람이 동무하며 어깨를 감싸줄 때도 적지 않았기에 버티며 살아온 것이 아니었을까. 살다보면 쓸쓸한 풍경이 오히려 위로가 될 수도 있는가보다. 잃어 버린 게 가느다란 줄기만 남은 덩굴이, 높이거니 서 있는 나무를 포옹하며 떨고 있다. 그 모양새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처럼 애달파 보이다가 흐트함으로 바뀐다.

산과(山客)를 채근하는 경사 길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다. 바람에 정신이 팔려 잊고 있던 산과 나무에게서 나는 냄새가 코를 스친다. 어쩌면 이토록 진한 숲의 향기를 깨닫게 되고 있었던 것일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작은 일에 매달려 큰 것을 놓치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했던 나의 지난날이 떠올랐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 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저울질하며 교만을 부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한 나만을 고집하는 이기심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

조심스레 내리막길을 걸었다. 내려오는 길에 돌담이 보인다. 등산객들의 소망이 소박하게 쌓여 서 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사랑을 또 어떤 이는 가정의 평화를 등에 담아 올렸을 것이다.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뭉클하며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스밀대며 꿈을 낸다. 잠시 생각해보니 새로운 희망이었다. 희망이란 녀석은 항상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그랬다.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명답은 많다.

새해에는 정답을 찾기 위해 남비하지 않고 명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리라는 소망을 살며시 돌담에 얹어본다. 차가운 바람에 휘날리기가 물어 있다. 조울충(본지 기자·수필가)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필자 <비밀댓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